

공동관심사 나눔

1. 오늘 일정 안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의 전교를 나누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 새날청년회 배움마당 :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
- 목회운영위원회 : 오후 2시, 온라인(ZOOM)
- “굿문” 축제 : 신앙 수필, 추억이 담긴 사진과 물품 공모 추가모집 : 4월 30일(금)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cloudcam@kakao.com), 교인 단톡방, 우편
- 미래선교위원회 음악선교팀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 : 5월 30일(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
- 봄철 심방 : 봄철 심방 신청을 받습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들녘농산물 판매 : 백미, 현미, 7분도미, 참기름, 들기름, 들깻가루(문의: 이옥희 권사 010-4872-4821), 날이 더 따뜻해지기 전에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이번 주 일정 안내 : 4월 26(월)~5월 2일(일)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 4월 28일(수), 오후 8시, 온라인(ZOOM)
- 교육위원회 : 5월 2일(일), 오후 3시, 온라인(ZOOM)
- 향린 강좌, 『성서와 신학』 : 홈페이지에 동영상 게시 (유튜브 검색, “성서와 신학”)
- 새청 인문공화국 : 『호모 사케르』(조르주 아감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문의 : 유 건 010-5154-9202)
- 선교부 민중신학 공부모임 : 『갑과 그리핀의 과정신학-입문적 해설』,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 이번 주 성서일과 : 사도행전 8:26~40, 요한1서 4:7~21, 요한복음서 15:1~8

3. 이후 일정 안내

- 수요영성기도회 : 5월 5일(수), 오후 8시, 온라인(ZOOM)
- 교육부교역자 워크숍 : 5월 8일(토), 오전 10시, 어린이부실

4. 에큐메니칼 소식

- 조현정 목사 출판기념회 : 5월 1일(토), 오후 3시,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 주최 : 예수살기

5. 감사헌금

권지숙(부친상 기도 감사), 박정례(건강 감사), 염윤희(감사), 정새미/정준재(감사), 정인영/장동원(결혼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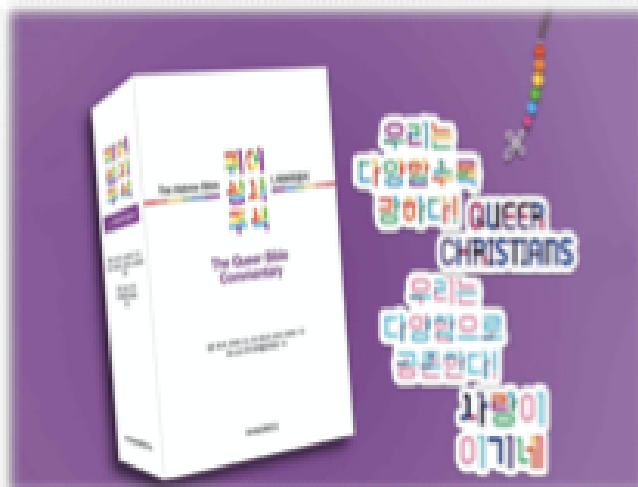
온라인헌금안내 : KEB 하나은행 024-22-02085-6 향린교회(입금 시 이름/목적 명기)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

-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목 / 회 / 마 / 당

<교회의 금기와 편견을 깨고 나온 “퀴어성서주석” >



이단 논란 속에도 6년의 준비 끝에 퀴어성서주석(QBC)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QBC는 2015년 초벌 번역에 착수했고, 출간 이야기가 알려진 2017년부터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공격 대상이 됐다.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 온 교회들은 '성소수자를 정죄하지 않는 신학적 가능성'을 담은 이 책을 '이단'이라 칭했다. 대만에

수교장로회 합동은 2017년 9월 총회에서, 아직 출간되지도 않은 QBC를 두고 '이 책은 이단성이 있으니 소속 교회와 교인들은 읽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즉, 구약에서 신약까지 총 66권의 내용을 해설한 역사상 최초로 간행된 퀴어 성서 주석으로, 열일곱 명의 퀴어 신학자들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발적인 질문을 성서 해설에 담아냈다.

퀴어 그리스도인으로, 퀴어 신학자로, 퀴어 목회자로 세계 각처에서 의미 있는 신학 작업을 이어온 다양한 저자들은, 퀴어 해석과 연관된 방대한 참고 문헌들을 통해 퀴어 신학이 결코 급조되거나 한때의 유행처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단 또는 '신학적 쓰레기'로 치부하는 편견을 견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판위원회는 3월 29일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였고, 4월 17일까지 총 889명이 펀딩에 참여하였다. 본래 목표금액 500만 원을 훌쩍 넘은 4천 4백만 원(약 900%)을 달성하며 펀딩은 마감됐다.

출판위원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의 참여는 이 시대의 사회와 교회 가운데 '반차별'과 '평등 세상'을 갈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기독교의 본래적 정신이자 지향이 무엇인지 묻는 교회 안팎의 목소리"라고 밝혔다.